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 데이터청

## 전문가 간담회



| 일시 | 2020. 6. 11. (목) 14:00 | 장소 | 국회 본관 228호  
| 주최 | 미래통합당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

- 4차 산업혁명 선도 -  
**‘데이터청’ 설립 전문가 간담회**

- ☐ 일 시 : 2020년 06월 11일(목), 오후 2시
- ☐ 장 소 : 국회 본관 228호
- ☐ 주 최 : 미래통합당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여의도연구원
- ☐ 주요 참석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  
 의의장, 국회의원 허은아

시 간	세 부 내 용	
14:00~14: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부 : 개회 (사회 : 김신의 여의도연구원 연구원)</li> <li>- 국민의례</li> <li>- 내빈 소개</li> <li>- 현장 축사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li> </ul>
14:20~15:2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부 : 토론회</li> <li>○ 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수환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송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li> </ul> </li> <li>○ 토론자(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경화 건국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li> <li>-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빅데이터 업체 '비투엔'대표</li> <li>- 윤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li> <li>-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변호사</li> <li>-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li> <li>- 박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li> <li>-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li> </ul> </li> </ul>
15:20~15:3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토론 및 Q&amp;A</li> </ul>
15:35~15:4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발언 및 폐회</li> </ul>

## &lt; 데이터청(廳) 설립에 관한 간담회 &gt;

도경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에서 데이터 관리, 활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의 시대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의 요구는 모든 ICT와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다양하고 안전한 서비스, 그리고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논의 될 때마다 데이터 활용시의 위험성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는 피해갈 수가 없다. 데이터3법의 통과가 되어도 실질적인 수집, 관리, 공개, 활용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없는 것이 걱정스럽다.

기존에 정부는 여러 부처의 업무특징에 따라 행정정보공유, 데이터공개,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과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조직마다 중요한 과업으로 되어있다. 이때 데이터의 종류도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정보, 기상정보, 교통정보 등 단순 정보뿐만 아니라 신용 관련 금융정보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는 긴기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해 오면서, 정부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장비 등 자원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 측면도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선진사례로 방문하고 전자정부 평가 순위도 상위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역학조사/대응 등의 근간이 되는 정보의 활용과 빠른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협력의 힘, 데이터의 힘이라고 본다. 또한 버스안내, 위치정보안내 등과 연계된 다양한 신규서비스의 등장도 얼마나 편리함과 효과성을 주었는지도 경험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이 가져오는 변화가 서비스의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삶의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연결되는데 우리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공 데이터 종류와 데이터 제공 방법, 품질관리, 표준화 등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직 전문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산업발전을 위한 다

양한 산업서비스 등장과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활용인데,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보다는 더욱 집중적으로 데이터화 시키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조직의 설립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이라고 본다

금융기관에서는 오픈뱅킹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및 역학조사를 통해 생활이 변화하고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만들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자 하고 이동통신, 클라우드로 서비스의 경계를 없애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전문성, 데이터 조직의 거론이 안되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37개 부처 160개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경우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총리산하에 신설하고 총리와 민간위원장을 두고 관계 기관에서 핵심 담당자의 파견을 받아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24의 서비스, 홈택스의 서비스, 금융기관 업무까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마련한 적이 있다. 이때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해 낼 수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이때도 후속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법, 행정정보공유센터 등의 큰 조직을 만들지 못해서 더 많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지 못했고 민간데이터와 연계되지 못했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데이터 관련 조직은 개인정보보호쪽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도 데이터 활용관점의 청들을 별도로 갖고 있다.

학교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의 신규 수업들이 요근래에 생기고 있는데 이런 신규 분야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더욱 느끼는 것이 데이터의 다양성과 활성화가 더욱 정진된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 활성화와도 연계될 것이 확실해 보였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데이터의 전문화된 인력을 많이 배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조직을 설립하고자 할 때 국가의 조직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제공/활용을 위한 전문성을 지원받고 국민의 개인, 사업 등의 이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도 어디 있는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무의미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을 하는 전문부서를 두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긴급 좌담회관련 의견

2020. 6. 11.,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미래 산업의 원유가 데이터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없는 경쟁 체제를 견인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4차산업 선도를 위한 ‘데이터청 설립’ 추진관련 의견으로 개진함

### □ 개 요

-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청” 설립
  - 보다 혁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리딩 조직 필요
-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데이터 경제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동시에 기존 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역할로 ‘데이터청’을 설립하여, 국경없는 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

### □ 역 할

- 데이터 전면 개방·유통 활성화
  - 공공기관 보유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10개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의 전면 개방·유통
-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 강화
  - 국가·사회 전 분야의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종합적인 지원 및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 연계 강화

○ 데이터 활용 확대

-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 활용 확대 및 지원

○ 데이터 컨트롤 타워

- 데이터 결합 인증기관 및 데이터거래소 컨트롤 타워 역할

○ 미래형 조직

- 현행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혁
-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법제도 정립
-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지원 등 활성화 생태계 조성
- 새로운 출발은 글로벌을 근간으로 수립 및 추진

※ IT 기업들이 국내를 벗어나, 실질적인 글로벌 K-IT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미래형 조직

□ 현 안

-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 시대로 구분되는 디지털 전환의 변곡점에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래산업인 4차 산업 분야에서 능동적인 대처 방안 및 혁신적인 추진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

- '국가미래청'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조정 검토  
다만, 부처 소속기구로 존립하기에 독립적인 추진 미약

※ '청'의 현실적 단점을 보완하며, 혁신과 변화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 수준으로 한 독립기구로 하되, 비즈니스형 조직으로 운영체계 구축하며, 명칭은 '국가미래성장위원회' 로 제안

- 이미 도래한 언택트 시대, 반면에 현행 규제와 새로운 기술 간의 해소되지 않는 괴리는 과감하게 타파 필요

- 길잃은 데이터 3법(법 및 시행령)의 최종 단계인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시에는 반드시 또 하나의 규제법이 아닌 진정한 기업 성장을 주도하는 지원법이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기업이 즉시 반영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제정 필요. 끝.

## &lt; 데이터청(廳) 설립에 관한 간담회 &gt;

윤지영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지능형 정보 기술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되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용한 데이터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자 시스템 발달수준이 높은 나라로서, 공공데이터의 개방에 관한 정부의 움직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연계 역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분야에 불과하며 민관의 업무협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특정 교류의 형태가 많았다.

지능형 네트워크 사회, 플랫폼 사회라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는 그 시스템이 따라 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그 데이터들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수집하고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집중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데이터청’이 필요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데이터 관리가 부처별로 혹은 연계 민간기업과의 유사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결합,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던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청의 설립을 통해 타 부처간, 타 기업과의 상이한 성격을 가진 데이터들도 유용한 가치를 지닌 자료로 결합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데이터 시장에서는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많은 부분에서 민간 영역이 데이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 정책에 따라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시장규모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그 형태가 앞서 언급한 지능형 네트워크 사회에 어울릴만한 모습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의 사례를 들어보면, 2020.6.9. 현재, 파일데이터 31,759건, 오픈 API 5,589건, 표준데이터 120 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파일데이터 14,115건, 오픈 API 1,790, 표준데이터 31건과 2017년 파일데이터 22121건, 오픈 API 2,457건, 표준데이터 58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주요현황, 2017.12.1.) 과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부를 통해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통해, 정부기관들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개인들 역시도 자신들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의미 있는 비즈니스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도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정부를 통해 공개되는 공공데이터의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혁신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청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데이터청을 통해 각 부처별/ 기관별/ 민간에서 혼재되어 있던 자료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소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표준화이며, 현실화된 데이터법과 제도 역시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1년 설립된 영국의 디지털서비스청(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사례를 보면, 데이터들을 하나의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된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 발표된 ICT 기반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정부혁신 동향보고서'를 보면, 지능정보화 사회에서의 디지털정부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와 데이터에 관한 전략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는데, 그 중 중요하게 살펴 볼 부분 중 하나가 정부 부처의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가 적절한 틀 안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즉,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면서 혁신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데이터 관련법들도 여러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한걸음 더 성장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다. 데이터법이 거론될 때마다 언급되는 개인정보보호문제나 개인의 사생활문제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책마련과 사회적인 신뢰가 함께 형성되고,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을 마련하면서 데이터청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데이터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 4차산업 선도를 위한 '데이터청 설립' 긴급 좌담회 토론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한국IT법학연구소장)

## □ 현 황

- 이용자정보를 비롯한 데이터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빠르게 차지하고 있는 형국.

※ 최근 30년 글로벌 기업군 시총 변동 추이: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업 --> 이제는 포털, 온라인유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로의 세계 경제 주류 이동.

-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방대한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 생산·제공하는 각종 콘텐츠 등 데이터 트래픽을 근거로 광고 등 수익 창출.

rank	1989Y	2018Y
1	NTT (Japan, \$163.9 billion)	Apple (USA, \$926.9 billion)
2	The Industrial Bank of Japan (Japan, \$71.5 billion)	Amazon (USA, \$777.8 billion)
3	Sumitomo Mitsui Banking (Japan, \$69.5 billion)	Alphabet(Google) (USA, \$766.4 billion)
4	Fuji Bank (Japan, \$67.0 billion)	Microsoft (USA, \$750.6 billion)
5	The Dai-ichi Kangyo Bank (Japan, \$66.1 billion)	Facebook (USA, \$541.5 billion)
6	IBM (USA, \$64.6 billion)	Alibaba (China, \$499.4 billion)
7	The Mitsubishi Bank (Japan, \$59.2 billion)	Berkshire Hathaway (USA, \$491.9 billion)
8	Exxon Mobil (USA, \$54.9 billion)	Tencent (China, \$491.3 billion)
9	Tokyo Electric Power (Japan, \$54.4 billion)	J.P. Morgan (USA, \$387.7 billion)
10	Royal Dutch-Shell Group (UK, \$54.3 billion)	Exxon Mobil (USA, \$344.1 billion)
11	Toyota Motor (Japan, \$54.1 billion)	Johnson&Johnson (USA, \$341.3 billion)
12	GE (USA, \$49.3 billion)	Samsung Electronics (Korea, \$325.9 billion)

< Changes in global corporate market capitalization over 30 years >

## □ 문제점

- ‘데이터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 미진.

- 해외와 비교, 국내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시장경제적 인식 부족 +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데이터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거의 전무(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 2020. 1. 신기술과 신규서비스 이용자 정보 등 규제기관 및 개인정보 관련 규율

일원화 등을 담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vs 특정 개인 식별할 수 없어 본인 동의가 불필요한 가명정보 역시 그 사용 목적이 제한되는 등 근본 해법이라기엔 부족.

## □ 데이터청 설립 관련 제언

- 데이터경제를 선도, 특히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조성 전담하는 조직(‘데이터청’) 필요성 및 당위성 존재.

- 원활한 데이터 거래의 전제로서, 데이터 재산적 가치 공식 인정·법제화<sup>1)</sup> 시급. 특히,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데이터 기여 보상제’ 법제화 필요.

※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 인정 -->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 --> 궁극적으로 국내 정보보호 역량 강화 선순환 효과 기대.

- 동 내용을 담은 (가칭)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동 법률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데이터청” 설립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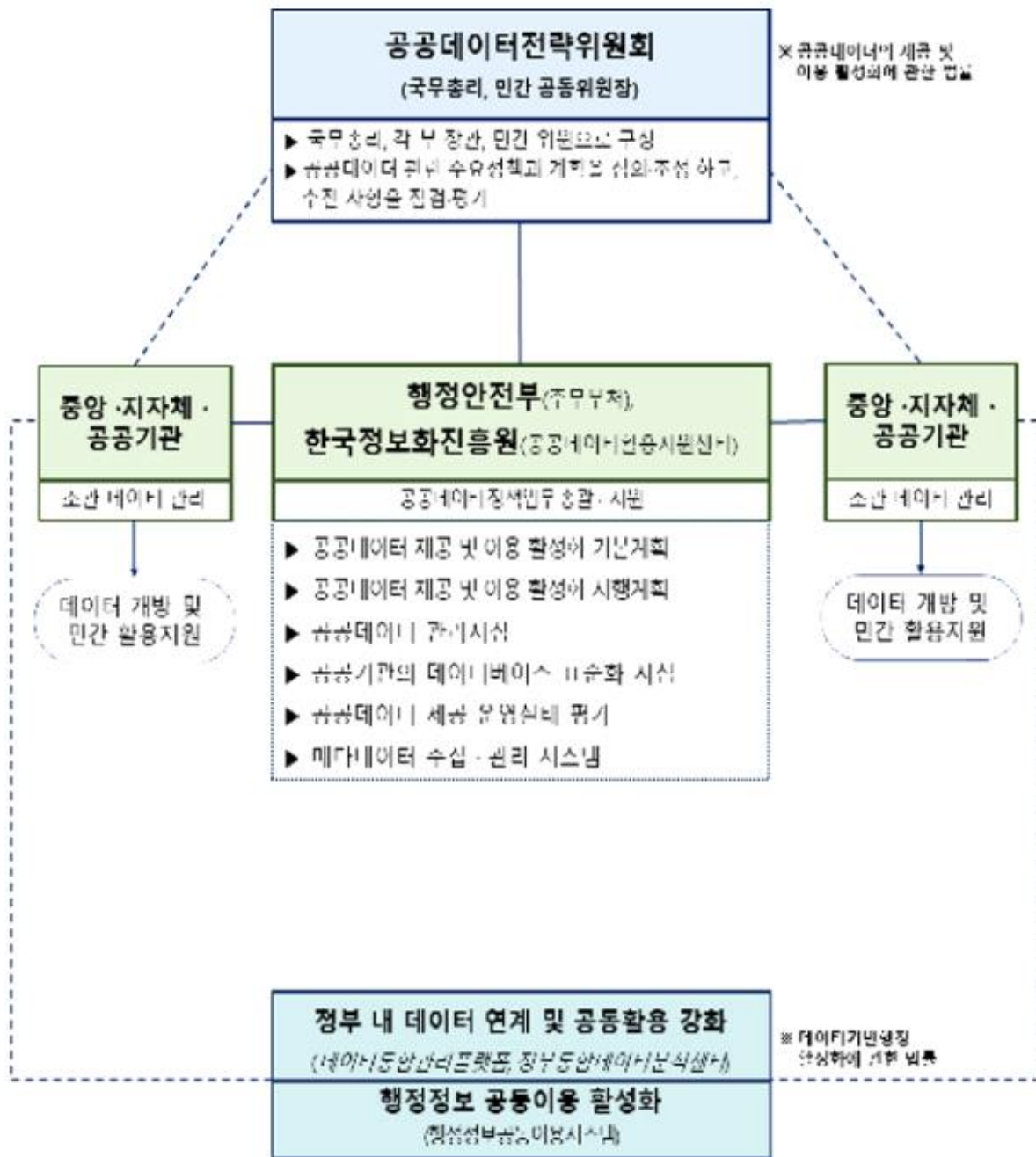
1)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토론)

공공데이터 정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 거버넌스 개념도



(현장토론)